

민생법안 '수북'... 미세먼지 해법 공방

여야, 3월 국회 일정 돌입... 13일 본회의서 법안 일괄처리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3일 대정부질문 개최

3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을 마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은 당의 황영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국회는 오는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9~2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의원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민생법안은 수북이 쌓여있다. 게다가 쟁점 법안이 다수다. 여야는 우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해법을 위해 관련법을 일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도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럼 다른 민생·개혁법안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따라서 '미세먼지 공조'로 문을 연 3월 국회가 원활하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공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연계 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야 3당에 제시하는 대신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할 법안 처리에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셈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을 패배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한 석이라도 더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에 대한 공개답변 성격이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명분을 약화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일 민주당과 야 3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급속히 정국이 얼어붙을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다시 열려 다행"이라면서도 "손혜원 국조 등 쟁점이 잠복해 있어 언제 다시 교착 정국이 형성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에듀파인 도입 4월 본격화”

“추가 참여 위해 일정 조정 필요”... 236곳 아직 미참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형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신청 기한을 이달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에듀파인에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들이 있어서 일정을 약간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사용신청 기한을) 일주일 정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에듀파인 도입은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맞춤형 교육 등 도입 신청 후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은 이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특위는 도입 의사가 있지만 아직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 지난 4일 '개혁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절충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개혁 연기' 사태 이후 한

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에듀파인 도입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6곳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 사용 신청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2개"라며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17.7%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계속 반복돼 온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이번을 계기로 끊기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렸지만 (최장 330일 지나야 자동상정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그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그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톡과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의전비서관 공백 해소

광주출신 박상훈 대사 선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의전비서관으로 박상훈(55) 외교부 공보외교대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외교안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고시에 합격한 뒤로는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 등을 지냈다. 이번 인선으로 김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로 직권면직된 지 104일 만에 의전비서관 공백이 해소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매달 1일 임시국회 소집” 권고

국회혁신안 발표... 공직자 이해충돌 상임위 배정 방지 등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하고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국회혁신자문위는 우선 '일 잘하는 실효 국회'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개최 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왔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전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

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혁신자문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방안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 파견기관의 분청 퇴거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유형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권고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사창리 대지 268㎡ 조용한생활적합 3천만원
- 무안군 해지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자수지 점 1192㎡ 조용한 생활적합 1억27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투자에 최적 금고 5천 매도 1억2천5백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영업장임 임대중 4억7천
- 강진 선전면 월출산 밀 4차선 점 4630㎡ 대형 자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을 원룸·다세대부지 균형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임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나주 금천면 면사무소 인근 땅 704㎡ 상가주택 211㎡ 5억5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금천면 국도 점 주거지·대지·지연복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1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2억 5천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오피스텔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물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보증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평가 - 1억2천만원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강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국

H. 010-9416-1200 T. 062)230-7700~2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검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